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산업보건을 만듭니다

월간 <K-산업보건>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산업보건>을 읽은 소감과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참여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후 의견 남기기



참여 기간

2024년 5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총 10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호 독자평

4월호를 통해 제조업과 건설업도 많은 진폐 재해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MSDS 관리요령'과 '관리 대상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를 이행하기 위한 게시물 제작방법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디에스단석 안전보건팀 보건관리자 정소록

'그 사람의 직업병'이 흥미로웠습니다. 고된 업무에도 법령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보호사의 현실 상황이 잘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관리자 김은영

MSDS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통해 다시 한번 사업장에 있는 MSDS 현황을 점검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사항도 정리되어 있으면 초보 보건관리자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쿄일렉트론 보건관리자 정유리

'이슈체크'를 통해 MSDS의 법적 의무사항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SDS 자료 수집 시 특히 수입품의 경우 수입사에는 영문SDS 자료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입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해도 MSDS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자 김유나